

평화드림포럼\_평화드림5만리\_참여 기간: 2023.06.25.~07.07.

참가자: 김태현(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3/4학기)

## 평화드림 5만리를 다녀와서

### I. 들어가는 말

본 글은 지난 6월 25일 주일에 출국하여 7월 7일 금요일 대한민국에 입국으로 이루어졌던, 평화드림5만리를 다녀온 후 기록하는 글이다. 본 행사를 통해 총 5개의 국가(네덜란드,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10개의 도시(암스텔담, 헤이그, 하노버, 베를린,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프라하, 크라쿠프, 비엔나)를 방문했다. 이 여정을 통해 팀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지지서명 행사를 진행하였고, 우크라이나 구호품 전달도 진행하였다. 또한 두 번의 국제학술포럼에 참여했으며,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본 행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것은 평화를 생각하고 이룬다는 것이 꿈꾸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본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다. 직접 유럽 땅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평화 지지서명을 받고, 그곳에서의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도시의 배경들 모든 것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행사 2주 가까이의 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본 글에서는 지난 평화드림5만리 기간 중 방문하였던 국가들의 일정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적어 내려간다. 순서는 위에 언급한 국가 순서로 적어 내려가겠다.

### II. 몸 말

#### 1) 네덜란드

첫 번째로 도착한 국가는 네덜란드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정식 후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 도착 후 경유하여 네덜란드에 도착했다. 그렇게 첫 번째 일정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암스텔담의 코레 텐 봄 하우스, 안네프랑크의 집, 시청사 일정이 있었으며, Sint-Bavokerk (Church of St. Bavo) 앞 광장에서 첫 번째 공식 찬양과 기도회가 있었다. 그리고 담 광장에서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는 헤이그로 이동하여 이준열사 묘적지를 방문하고,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관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후 시청사에서 퍼포먼스와 지지서명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헤이그 이준기념교회로 이동하여 첫 번째 학술포럼("헤이그 특사 파견과 이준의 평화, 정의사상"-서영석 교수님, 협성대학교)을 진행 하였다. 이준 열사의 정신이 평화를 염원하는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2) 독일

두 번째로 도착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먼저 하노버에서 일정이 시작되었다. 시장교회를 둘러보았고, 하노버 중앙역에서 퍼포먼스와 지지서명 받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에기디엔 교회를 들렀다. 이 교회는 전쟁 중 포격으로 무너진 교회였다. 하지만 독일은 과거의 얼룩졌던 역사를 지워버리지 않고, 폐허로 남은 교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하노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으로 이동하였으며,

유대인 박물관, 돔 광장에서의 퍼포먼스와 지지서명, 브라덴부르크에서의 퍼포먼스와 지지서명, 국회의사당 방문, 그리고 두 번째 학술포럼(유럽 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 “전쟁,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_김상국 교수, 베를린 자유대학)이 베를린 백림감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비텐베르크로 이동하여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둘러보았다. 이후 라이프치히로 이동하였으며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 앞에서 퍼포먼스와 지지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하였으며 퍼포먼스와 지지서명을 받는다. 독일에서의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거리 곳곳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인적사항이 해당하는 건물들 앞 바닥에 적혀있고, 이를 기억하는 기념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유대주적 기록들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서 아픈 과거를 없애지 않고 반성한다. 전쟁의 상처 역시 묻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후대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알려준다.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독일에서는 기억을 통해 앞으로의 인류에게 똑같은 악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브라덴부르크에서의 퍼포먼스 중 우크라이나 인들을 만나는 것도 큰 감격이었다.

### 3) 체코

세 번째로 이동한 국가는 체코이다. 프라하로 갔으며 그곳에서 한인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여한다. 예배 후 프라하 광장으로 이동하여 퍼포먼스와 지지서명을 받는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선교현장을 둘러보았다. 프라하 광장에서의 퍼포먼스와 지지서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관광지여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지지서명을 해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서명을 보면서 평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 4) 폴란드

체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네 번째 국가 폴란드로 이동했다. 폴란드의 크라쿠프 광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퍼포먼스와 지지서명을 받는다. 이곳에서 1,000명의 서명을 달성하게 된다. 이후 다음날 아우슈비츠에 방문 한다. 폴란드 크라쿠프 광장에서도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폴란드 뿐만아니라 다른 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팀이 부르는 우크라이나어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기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심지어 러시아 여성분도 만났는데, 그분도 흔쾌히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평화에 지지서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방문은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다. 수백만에서 천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 희생자가 발생한 곳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니 그 자체로 생각이 많아졌다. 여기에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으며, 나 역시 그 아픔의 흔적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피부로 다가왔다. 말 그대로 인간도축장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의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다.

### 5) 오스트리아

폴란드 일정이 끝나고 오스트리아로 이동하였다. 7/5 오전 우크라이나 구호 물품은 체코 프라하의 목사님께서 오스트리아로 오셔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구호 물품 모두 들어간다) 그리고 은희곤 감독님과 유경동 교수님, 심자득 목사님은 비엔나 UN사무소에 평화 지지서명 서류를 제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슈테판 성당 앞 광장에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다음 날 오전,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였으며 두바이로 이동 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그리고 해단식으로 모든 평화드림5만리의 일정을 정리한다.

### III. 나가는 말

평화드림5만리 모임은 2023년도 초부터 준비가 시작되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의 지원과 배려로 귀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이 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6.25 전쟁의 흔적과 이에 대한 아픔 등 많은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의 분단의 현실이 있으며, 이 와중에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관계도 복잡하게 흘러간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익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꿔 가는 정권과 정치가들에게 질려서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일개 청년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들, 위에 있는 정치가들은 이익관계에 맞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되어 버리면 평화를 위한 정책들을 엮어버리니 말이다. 하지만 평화드림5만리 일정을 통해 유럽을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과거의 평화를 지향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는 도시 곳곳에 걸린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지하는 국기를 걸어놓는 것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 안일했음을 반성하게 된다. 내가 이를 통해서 다짐하게 된 것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화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를 생각할 때 현실의 고통들과 아픔들 때문에 지금은 없을 먼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평화는 추상적이 되고 실천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일정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모습일지라도 철저하게 기억하려고 하고, 잊지 않고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생각과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함을 깨달았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적 상황과 이익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생각과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 나를 시작으로 나의 주변과 그리고 공동체, 더 크게는 대한민국 사회에까지 평화를 흘려보내야 할 것이다. 즉 절망가운데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그럼에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것이다.

셋째, 평화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져있다. 이런 삶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란 나와 연관이 없는 것이 된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된다. 사회구조와 삶의 양태가 그렇게 흘러가니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해 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평화를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길 기원한다.

결과적으로 평화드림5만리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나의 삶에서 총체적으로 평화를 생각하고 이룬다는 것은 그저 꿈꾸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 유럽 땅을 밟으며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화 지지서명을 받고, 그곳에서의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도시의 배경들 모든 것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 나의 앞으로의 삶에 큰 반향전환을 기대한다.